

옛 도청 일대 한눈에...계엄군 침투 앞서 거점 확보

호남 언론 역사 상징 전일빌딩 왜 헬기 사격 타깃됐다

시민군 다수 은신하고 옥상에는 경기관총 설치 21일 계엄군 철수 때·27일 도청 진압 때 무차별 사격 당시 금남로 최고층...기선제압 위해 최소 2차례 기총소사

호남 지역 언론 역사를 대변하는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를 당한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5·18 헬기 총격을 조사 중인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도 전일빌딩이 무려 2차례나 헬기 공격 대상이 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일빌딩이 옛 전남도청 주변 금남로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헬기 기총소사는 진압지역 침투에 앞서 거점확보를 위한 군사작전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선 시민군의 저항을 일시에 제압하기 위한 위협 작전이라는 주장과 시민군이 전일빌딩 옥상에 설치해 놓은 기관총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1965년 건립된 전일빌딩은 1980년 5월 당시 금남로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10층)이었다.

특히 전일빌딩 옥상은 옛 전남도청을 비롯한 세무서, 노동청 등 주요 건물에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라는 점에서 주요 거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5·18 당시 전일빌딩 시민군이 모여 있었으며, 계엄군은 이들을 제압

하기 위해 최소 2차례에 걸쳐 헬기 기총소사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소사를 봤다는 주요 증언 시점들도 크게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에 집중됐다. 우선 21일에 발생한 헬기 기총소사 작전은 시민군의 기선을 제압하고, 계엄군의 외곽 철수를 지원하기 위한 작전으로 분석되고 있다.

21일 계엄군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이날 오후 1시 시민을 향해 집단 발표한 이후 시민군이 무장을 하자, 오후 4시 광주 외곽지역으로 철수를 하게 된다. 헬기는 이날 계엄군의 집단 발표 직후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사격을 하고, 계엄군의 철수를 돕는 작전을 펼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故) 조비오 신부도 1989년 2월 국회 청문회에서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30분에서 2시 사이 전남도청 쪽에서 사자공원 쪽으로 헬기가 날아가면서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3차례에 걸쳐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고 아놀드 피터슨 목사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61항공단 소속의 한 군인도 "5월 21일 오전 최세장 3공수여단장이 61항공단장에게 "지금 당장 출동해서 사격하라"고 명령했다. 61항공단에서 지원 온 수송 헬기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표적이 된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신군부는 헬기사격을 부인했지만 목격자 증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등을 통해 기총소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UH-1H 3~4대에는 M60기관총이 설치돼 있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5월 27일 새벽 전일빌딩 헬기사격은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앞서 거점 확보 및 시민군이 옥상에 설치한 기관총 제거 등의 목적이 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7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헬기 기총소사 작전을 종료한 뒤 10분 후인 4시 10분부터 제3공수여단이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

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와 보급반장 구성주씨의 증언에 따르면 시민군은 헬기 기총소사 하루 전인 5월 26일 전일빌딩 옥상에 경기관총을 설치했으며, 전일빌딩에는 시민군 13명이 있었다. 진압작전에 들어가기 전 건물 안에 은신한 시민군의 저항을 일시에 제압하기 위해 헬기 사격을 병행했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

다.

전일빌딩 작전에 진입했던 부대인 11공수여단의 한 지휘관도 지난 5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습작전의 기본은 헬기 공격으로 적의 사기를 완전히 꺾은 뒤 감행하는 것이다. 건물에 병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반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헬기 사격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방부 5·18 비밀문서 2000쪽 특조위 제출

군부대 출동·작전활동 등

진상규명 기대감 높아져

국방부가 비밀 해제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문서(2000쪽 분량)를 5·18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출 문건 상당수는 지난 1995년 검찰 조사에서 공개됐지만 공군과 합동참모본부 관련 자료는 새로운 것이어서 5월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 문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특조위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6일~10월11일 전군을 대상으로 5·18 관련 기록물 보유 실태를 조사했다. 군이 보유 중인 5·18 기록물은 모두 29개 기관 60여만쪽에 달했고 이 가운데 비밀문서는 16건 226쪽으로 파악됐다.

미공개 자료는 공군 2건(187쪽), 합참 3건(1166쪽)이다. 3급 비밀로 분류된 공군본부 비밀문서 '공군사 7집', '소요 진압과 그 교훈' 등은 5·18 당시 경계태세 2급 발령과 비상소집 등 '기지방어 계획'을 담고 있다. 5·18 당시 참가부대의 일차별 활동도 기록하고 있다.

합참의 역사자료 '계엄사'와 '광주사태 자료 정리' 등도 새롭게 발굴된 문건이다. 대외비 문서는 5·18 당시 육군 부대 출동·이동 상황, 일차별 작전 활동, 부대 지휘관, 부대 이동 관련 작전 명령·지시, 특전사 부대 이동과 작전 활동 등에 관한 것이다.

다만, 특조위원 사이에서는 전두환 정권이 1988년 청문회를 앞두고 조직적인 자료 왜곡을 한 상황에서 이들의 신뢰성 여부를 평가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신군부 자료 왜곡·조작 심각에 특조위, 증언 확보 활동 나섰다

'5·18 관련 군 자료가 조작·왜곡됐다'는 판단을 내린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들이 증언과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 나섰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위원들이 30일 광주일보 등 지역 언론사를 방문, 5·18 진상규명 활동을 소개하고 제보와 증언을 발굴하기 위한 언론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5·18 특조위 김성 부위원장, 안종철 위원을 비롯한 특조위를 지원하고 있는 나외갑 5·18진실규명자문관이 동행했다.

이들은 신군부의 자료왜곡 등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 작업이 난항을 겪자 현장 홍보활동에 나섰다.

김성 부위원장은 "이미 많은 기록이 왜곡·조작된 상황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자료와 5월 당시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함께 5·18의 진실을 밝혀 줄 제보자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광주 폭격설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제보 희망자는 광주일보 (062-220-0655, 0633), 이메일(kimyh@kwangju.co.kr) 또는 특조위 (02-748-0974~7, uk8900752@mnd.go.kr), 광주시(062-613-5386~7, chormoi@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미성년 유인' 이영학 딸 구속

'여중생 살해' 사건과 관련, 이영학(35·구속)의 딸 이모(14)양이 미성년자 유인·사체 유기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검찰이 보강조사 등을 통해 재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30일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A양의 시신을 이영학과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건네서 마시게 하고, 실종 당시 딸의 안부를 묻는 A양의 모친에게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의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진료기록부 조작 보험사기

한방병원장 등 무더기 적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수익원 대외 보험금을 타낸 한방병원장과 의사, 환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가짜 환자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 80대 고령의사를 고용했으며, 허위환자 대부분은 사우나와 다른 병원 등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의 권유로 입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북부경찰은 30일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금과 보험금 등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 한방병원장 한모(45)씨를 구속하고 환자 등 115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신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서 가짜 입원환자 113명을 유치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억여원을 받아 갹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의 병원에서 허위 입·퇴원서를 받은 허위 입원환자 113명은 각자 가입한 민영보험에서 총 2억1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허위 환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 80대 후반의 양방의사까지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씨의 병원을 통해 허위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타지역의 환자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환자들은 사우나 등에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허위입원을 권유했다고도 진술했다. 한씨의 병원은 경찰조사 시작되자 지난 7월 폐업 신고했다.

경찰은 허위 환자를 유치하는 전문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곤봉 들고 결투 신청한 공군병장

○--광주 북구의 한 공원을 지나가는 청소년에게 '맞고 갈래, 그냥 갈래'라며 일대일 대결을 신청한 공군병장이 경찰서행.

○--3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공군 병장 A(23)씨는 지난 28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공원에서 B(16)군에게 박달나무 곤봉(길이 53cm)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곤봉을 휘두르며 결투를 신청했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A병장은 경기도 오산의 모 공군부대 소속으로 오는 11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말년휴가를 나온 A병장이 B군의 머리를 곤봉으로 3차례 때린 것도 모자라 도망가는 B군을 50m가량 뒤쫓아가며 위협했다"면서 "경찰에게도 곤봉을 휘둘러 A병장의 영등이에 테이저건을 쏘 거머쥔 뒤 공군 헌병대에 A병장을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3가 업무시설

경매물건



토지 480평 건물 1503평

감정가 103억 최저가 76억

【법원 경매/공매】

토지	일반물건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임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정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담양군 남면 만월리 만월재바루로 도로점 토지 4409평 감정가 30,000,000 최소가 30,000,000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임야 파도리사무소인근 도로점 토지 18452평 감정가 140,000,000 최저가140,000,000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윤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동산지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4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